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명 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시점을 통한 소설 교수 학습 방법  
연구

20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 지 혜

시점을 통한 소설 교수 학습 방법  
연구

김 명 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 지 혜

# 인 준 서

김지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 개요

본 연구는 시점 교육을 소설 교육의 한 분류로 보고, 효과적인 소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점 교육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소설 교육 방법론을 모색해 보았다.

‘문학’ 영역은 아무래도 작품 수용 활동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강독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기 쉽다. 그러나 이런 주입식 형태의 수업으로는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습자가 교수-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요구해야 한다. 즉, 작품을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감상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문학 교육이 이론으로만 제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에 접근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을 해석해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학 생산을 소통의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수용이나 생산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와 독자, 맥락, 작품 등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범박하게 볼 때 문학 활동은 작가, 작품, 독자, 맥락, 문학적 문법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복합적인 현상이다. 학습자는 수용자로서 이 소통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생산자로서 참여하기도 한다. 특히 ‘생산’ 경험은 학생들의 문학 경험을 완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문학 교수-학습에서 빠뜨리기 어렵다.

시점을 통하여 소설 교육을 하는 것은 학습자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작품의 의사 소통 구조에 참여하게 하고, 교수-학습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한다. 또한 시점을 작품에 드러난 주제를 해석하는 통로로서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한다. 그러나 현행 학교 교육에

서의 서술자 교육과 서술자를 파악하여 전개되어야 할 시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편협한 시각에서의 이론적 지식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시점 연구를 통해 소설 작품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 지도안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소설 교육에 있어서 다양함을 몸소 체득하고 그 성취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소설 작품 내에서 서술자의 역할과 그 특징, 서술자의 의의에 대해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나아가 시점 교육이 지향해야 할 부분과 학습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실제 수업 적용 교수-학습 프로그램에서는 일차적으로 학습자가 서술자를 인식한 후 시점이 갖는 특성을 파악하는 수업과 원작의 시점을 변용하여 텍스트를 재창작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는 수업으로 구성하여 각 차시에서 진행되어야 할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하였다. 또 각각의 수업이 가지는 교육 효과와 수업 진행 면에 있어서 교사의 지도상의 유의점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소설의 시점이 독자와 작가의 태도와 세계관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작품에 드러난 주제 의식을 해석하는 통로로서 소설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있어서 효용성이 크다는 점을 토대로 하여 시점을 통한 구체적인 소설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4
3. 연구방법 .....	10
II. 현행 교육 과정의 시점 교육 분석 .....	16
1. 제7차 교육 과정의 시점 교육 .....	16
2. 시점을 통한 소설 교육 방법의 제언 .....	26
1) 서술자의 존재 인식 강조 .....	26
2) 서술자의 위치와 특성 파악 .....	30
3) 시점의 유형과 특성 파악 .....	32
3. 시점을 통한 소설 교육의 기대 효과 .....	36
1) 의사 소통 구조에 적극적 참여 .....	36
2) 주제 의식을 해석하는 통로 .....	37
3) 의미 구조의 이해 .....	38
III. 시점 활용 교수-학습 모형과 실제 .....	39
1. 서술자 파악과 시점 이해 .....	41
2. 시점 변용을 통한 텍스트의 재창작과 효과 .....	47
IV. 결론 .....	66

### 참고문헌

### ABSTRACT

## 표 목 차

[표1] 7차 교육 과정 및 7차 개정 교육 과정에서의 시점에 대한 교육 .....	16
[표2] 중학교 2-1 6단원 ‘작품 속의 말하는이’ 관련 형성 평가 1	23
[표3] 중학교 2-1 6단원 ‘작품 속의 말하는이’ 관련 형성 평가 2	24
[표4] ‘서술자 파악과 시점 이해하기’ 교수-학습 지도안	41
[표5] 교과서 속의 텍스트 변용 관련 학습 활동의 예	47
[표6] ‘시점을 변용하여 텍스트를 재창작하고 그 효과 파악하기’ 교수- 학습 지도안	60
[표7] 시점 바꾸기 학습 활동지	64



# I. 서론

## 1. 연구목적

우리는 문학을 통해 다양한 인간의 삶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문학에 대한 이해와 감상은 적절한 개념과 기준을 요구한다. 한 편의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형성된 일련의 스펙트럼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 교육은 타당한 기준을 통해 적절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문학’ 영역의 교수-학습은 국어과의 본질 및 문학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정 상 국어과는 국어사용과 국어 문화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배우고 익히는 데 초점이 있다. ‘문학’ 영역 역시 문학 활동과 문학 문화에 관한 지식과 기능의 확충에 교수-학습의 초점을 두게 된다. 여기서 문학 활동은 문학 작품 및 문학 현상의 비판적인 수용과 창조적인 생산을 가리키고, 문학 문화는 문학의 역사적 전통과 문학 소통의 사회적 규칙을 의미한다. 학습자가 문학을 통하여 바람직한 문학 주체로 성장하고 사회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하고 운용해야 한다.<sup>1)</sup>

그러나 그동안 학교의 문학 교육은 문학의 본질을 외면함으로써 학생들을 문학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 이면에는 평가의 압박이라든지 문학 교육을 통해 무언가 명시적인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숨어 있는데, 이는 문학 교육의 실체를 재인식함으로써 극복<sup>2)</sup>될 수 있다.

---

1)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국어』, 2009, p.417.

본 연구에서는 문학 교육에서도 특히 소설 교육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 중 특히 시점 교육에 관해 모색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소설에서의 시점이 가지는 기능과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소설에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야기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전달될 수도 없다. 곧 서술자가 있어야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적절한 서술자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소설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다른 문학과 달리 소설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서술자’<sup>3)</sup>의 역할이다. 모든 소설은 서술자가 있으며, 소설 작품을 올바르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서술자와 독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왜 서술자가 중요한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서술자의 존재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요소를 떠나 이야기를 구성하기도 하고, 이야기의 본질을 결정하기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니기 때문이다. 결국 소설의 미학적 완성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서술자이다. 따라서 소설에서 서술자를 파악하는 것은 결국 소설을 파악하는, 소설의 이해와 수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이다.

그러나 현행 학교 교육에서의 서술자 교육과 서술자를 파악하여

---

2) 2007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문학 교수-학습에서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할 지향점으로 문학 경험의 내면화와 타인과의 공유를 지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텍스트를 정밀하게 읽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문학을 향유하고 폭넓은 경험을 쌓는 일도 중요하며, 문학과 관련하여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문학을 즐기고 남과 공유하려는 태도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작품 강독위주의 문학 교수-학습과 함께 문학 탐방, 인터넷 및 대중문화와의 연계, 문학적인 표현 활동, 문학 경험의 성찰 및 타인과의 공유 등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항목은 교육 과정 ‘3. 내용’중 ‘(4) 문학과 삶’ 부분과 관계가 깊다.

3) 서술자와 화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각 학자마다 선택하는 방식과 의견이 다르나 본 연구에서는 채트먼의 시점 이론에서 채트먼이 ‘서술자’를 언급한 것에 의거하여 서술자, 화자, 말하는 이 등과 같은 용어를 모두 서술자로 통일하여 사용하겠다. 단 논문의 간접 인용 부분은 저자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다.

전개되어야 할 시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편협한 시각에서의 이론적 지식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설 작품 내에서 서술자의 역할과 그 특징, 서술자의 의의에 대해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나아가 시점 교육이 지향해야 할 부분과 학습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검토

소설의 시점 교육과 그 교육 방안을 위한 선행 연구 검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 중 하나는 기존의 일반적인 소설의 시점에 관한 연구이고, 나머지 하나는 소설 교육 내에서 특히 시점을 다룬 연구이다.

먼저 시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시점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논의<sup>4)</sup> 수준은 주로 개괄적이고 간략한 정도의 수준에 그쳤다. 또한 서구의 브룩스와 워렌의 사분법 유형론이 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197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야 이재선의 『한국단편소설연구』<sup>5)</sup>를 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된다. 그는 독일 문예학이론을 포함한 서구이론을 원용하고 동시에 우리 문학사의 내적 문맥을 고려하여 서술자의 역할과 서술유형, 고전 문학과 근대 문학의 서술 상황적 연계성에 관한 연구의 길을 열었다. 이재선 이후의 연구는 액자소설연구, 시점유형론연구, 시점유형론과 소설사와의 관련연구, 시점연구를 통한 작가론으로 크게 네 갈래로 나누어 생각<sup>6)</sup>해 볼 수 있다. 첫째, 액자소설의 연구<sup>7)</sup>를 한층 심화시

4) 최인훈, 「시점에 대하여」, 『월간문학』, 1969.3.

구인환·구창환, 『문학의 원리』, 법문사, 1969.

김동리, 『소설작법』, 문명사, 1971.

구인환, 「한국현대소설의 구성적연구」, 『서울여대 인문사회과학논문집』, 1971.

정한숙, 『소설기술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5.

5) 이재선, 『한국단편소설연구』, 일조각, 1975.

6) 박재섭, 「한국현대소설 시점연구사」, 『현대소설 시점의 시학』, 한국소설학회 편, 새문사, 1996, pp.74~88.

7) 최성만, 「현대액자소설의 형태적 고찰」, 『어문교육집』 4, 부산사대국어교육과, 1980.

신순철, 「김동인의 액자소설연구」, 『경주실업전문대논문집』 1호, 1983.

이종임, 「동리의 액자소설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4.

김병로, 「현대액자소설의 서사시학적 접근」, 『한남어문학』 15호, 1989.

켜 나간 연구 경향, 곧 액자소설의 미학적 측면과 수사학적 방략을 탐구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고, 둘째는 시점의 질서를 유형화함에 있어서 기존의 사분법 시점유형론으로부터 보다 미시적이고 분석적인 유형분류 작업들<sup>8)</sup>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소설의 시점유형분류를 소설사적 변화와 결부<sup>9)</sup>시키려 한 점이다. 마지막으로 시점이론을 이용해 작품의 해석이나 작가의식의 변모과정을 탐색<sup>10)</sup>하고자 하는 경향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점의 문제는 다양한 변화를 거쳐 왔다. 시점 연구의 흐름은 규범적인 태도로부터 기술적인 태도로 넘어 온 것이다. 순수한 시학적 관심으로부터 해석학적인 관심으로 넘어왔지만, 해석학적인 관심 즉 구조 시학으로의 진전은 전통 시학이 구축한 토대와 발판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어느 시대에는 다시 재검토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음으로 소설 교육 내에서 시점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시점 교육에 중점을 두었느냐’, 혹은 ‘쓰기 교육 안에서의 시점 활용에

8) 최상규, 「시점에 관한 연구」, 『공주교육대학논문집』 13호, 1976.

김천혜, 「시점에 관한 연구」, 『부산대사대논문집』, 1976.

이경범, 「소설시점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신동욱, 「시점과 소설미학」, 이선영 편, 『문학비평론』, 고려원, 1984.

김유하, 「소설의 서술유형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최병우, 「한국 근대 일인칭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9) 조진기, 『한국근대 리얼리즘소설연구』, 새문사, 1989.

구수경, 「한국 서사문학의 시점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김용재, 「한국 근대 단편 소설의 기술 형식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10) 김중구, 「한국소설의 시점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노광복, 「채만식 소설의 서술상황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최시환, 「염상섭소설의 전개」, 서종택 정덕준 편, 『한국현대소설의 연구』, 새문사, 1990.

나영희, 「날개의 시점연구」, 『백록어문』 5호, 1988.2.

김형민, 「김유정 소설의 서술주체와 서술객체」, 『어문교육연구』 11집, 부산대학교, 1991.

이수정, 「일인칭소설의 신빙성없는 화자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오경복, 「박태원 소설의 기법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한혜경, 「채만식소설의 언술구조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정재석, 「한국소설에서의 유년시점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중점을 두었느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점에 유념하여 다시 세 유형으로 분류해보면, 순수하게 시점에 대한 교육 연구와, 7차 교육과정의 지향하는 통합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읽기와 쓰기 영역의 통합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그리고 텍스트 변용을 통한 지도 방안 연구 중에서 특히 시점을 변용한 연구가 있다.

순수하게 시점 교육에만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면, 진지원<sup>11)</sup>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채만식의 소설을 중심으로 시점을 분석하였다. 서술자의 서술태도와 초점화를 중심으로 시점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누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설에서의 서술자와 시점을 연구하였다.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되 시점 분석 중심의 소설 교육 방법을 제시한 점에 있어 그 의의가 있다. 또 앞에서 언급한 랜서의 이론을 적용하여 교수 방법론을 제안한 연구도 있다. 김정희<sup>12)</sup>는 랜서의 신분(지위), 접촉, 태도(입장)의 세 측면에 따라 구성한 서술 화자 이론을 토대로 삼아 1인칭 서술 화자의 서술기법에 대해 고찰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였다. 서술 화자의 서술 기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방법은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학습자가 작품을 이해·수용하여 능동적인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소설 교육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또 현행 교육 과정 및 교재에 나타난 시점 및 서술자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시점 분석을 통한 소설 교육 방법을 고찰한 오윤정<sup>13)</sup>의 연구는 서술 시점 분석을 통한 소설 교육 방법을 황순원의 「소나기」, 이상

11) 진지원, 「'서술자'와 '시점' 중심의 소설 교육 -채만식 작품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2) 김정희, 「1인칭 서술 화자의 서술 방식을 통한 소설 교육 연구-「봄봄」, 「장마」, 「그 여자네 집」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3) 오윤정, 「시점 분석을 통한 소설 교육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의 「날개」, 채만식의 「치숙」을 통해 제시하였다. 시점과 유형의 특성 파악과 서술의 특성을 통해 작품의 의미구조를 파악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그것이 분석에 그치고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자현<sup>14)</sup>은 7차 교육 과정 문학 교과서의 소설의 시점 교육에 대해 그 동안의 시점 교육이 많은 문제를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차 교육 과정에서의 소설의 시점 교육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시점 교육 방법의 지도 이론을 제시하였다. 문학 교과서의 전 출판사를 망라하여 총 정리하였다는 점은 주목 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이론적 논의에 그치고 문학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다음은 읽기와 쓰기 영역의 통합 교육 방안의 한 대책으로 시점 교육을 활용한 연구로서 고경희<sup>15)</sup>는 소설 교수-학습 중 하나로 읽기와 쓰기의 통합 학습을 강조하며 독서와 창작의 통합 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고등학교 1학년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30차시에 걸쳐 적용한 후 그 과정을 기술하였다. 기존의 이론에 그친 연구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을 제시한 점에 있어서 통합 지도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으나 그것이 가지고 오는 효과의 결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설계와 적용에 그쳐 효과적인 교육 방안으로는 미흡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시점을 활용하여 텍스트변용 지도 방안을 연구한 것으로서, 홍지영<sup>16)</sup>은 창의력 계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창의력 신장의 한 방안으로 텍스트 변용을 통한 글쓰기를 제안하였다. 다양

14) 김자현, 「문학교과서의 소설의 시점 교육 연구(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5) 고경희, 「창작 활동을 통한 소설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6) 홍지영, 「텍스트 변용을 통한 창의적 글쓰기 지도 방안 연구-〈시점 변용〉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한 텍스트 변용 활동 중에서 소설 텍스트의 시점 변용에 중심을 두었다. 텍스트 변용을 통한 글쓰기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하는 기회를 경험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적합한 교수-학습 활동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변용활동의 효과를 창의성 향상 부분에만 중점을 두어 글쓰기와 창의성의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그치고 시점의 변용이 가져오는 효과나 시점에 대한 이해의 서술이 부족한 점에 지적할 수 있다. 반면에 시점 변용의 글쓰기 교수-학습 모형은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교수-학습 활동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이상의 논의는 시점에 관한 논의와 시점 교육에 관한 논의가 그 논의에 있어서 다양성이 떨어지고, 단순히 이론에 대한 논의에 그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그 활용형이나 시점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시점과 서술 양상을 보이고 있는 오늘날의 소설에 대해서 기존의 브룩스와 워렌의 방법론은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박기범<sup>17)</sup>은 우리 문학 교육에서 시점과 서술에 관하여 교육할 때 그동안 많이 활용해 왔던 브룩스와 워렌의 이론이 가진 한계에 주목하여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안적인 시점-서술 교육 내용과 방향을 제안하였다. 그는 현행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서 여전히 우리의 서사교육이 브룩스와 워렌의 시점 유형론에 기대고 있음을 비판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이론들을 섭렵하여 서술자의 인칭, 시점, 서술의 세 축에 따라 화자 시점-서술, 인물 시점-서술, 일인칭 시점-서술로 분류하고 대안적인 시점-

---

17) 박기범, 「시점-서술 교육의 반성과 개선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31권, 국어교육학회, 2008, pp.323~367.



서술 교육 내용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한 시점-서술 유형들 사이에는 수많은 양상이 존재한다는 점과 시점-서술에 관한 이론은 구체적인 작품과 관련지어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육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초점화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시점을 '시점(초점화)'과 '서술'로 분리하여 가르쳐야 한다. 둘째, 시점과 서술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나 만화와 같은 대중 서사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작의 시점-서술을 바꾸어 봄으로써 원작의 시점-서술의 기능과 효과를 확인해 보는 학습 활동도 필요하다.

한편 읽기와 쓰기의 통합 교육 방법의 한 대안으로써 텍스트 변용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시점 교육에서의 한 방편이 아닌, 쓰기 즉 창작 활동의 일부분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런 문제점과 보완점에 주목하여 현행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의 시점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시점 교육에 있어서 그 목적과 의의 및 시점 교육이 가져오는 효과, 나아가서 효과적인 시점 교육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제7차 교육 과정의 ‘문학’ 영역이 학습자의 문학 능력 신장과 공동체 차원의 문학 문화 발전을 강조하였다면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의 ‘문학’ 영역의 목적은 문학 능력을 갖춘 바람직한 문학 주체의 형성과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사회 형성을 중시하였다. 문학 능력을 갖춘 바람직한 문학 주체는 다양한 문학경험과 활동을 통해 문학의 수용과 생산 능력을 갖추고, 문학의 가치를 자신의 삶과 통합하려는 태도를 지니며, 나아가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즉 문학 능력보다 그 능력을 운용하는 인간을 강조함으로써 문학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인간의 발전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학습자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한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중요한 조건이 되는 공동체의 바람직한 변화까지 추구하는 적극적인 인간 형성, 또는 공동체의 변화 자체를 ‘문학’ 영역 교육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학 교육의 목적에 가장 크게 부합될 수 있는 문학 교육의 영역은 소설 교육이다. 소설 교육은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가장 보편적인 문학 교육이다. 소설에서의 인물과 사건, 배경은 작가가 꾸며낸 허구의 생산물이지만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가장 현실적이기도 하다.

소설의 첫 번째 주안점은 시점이다. 소설 연구에 있어서 시점 연구가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시점은 소설에서 단순한 기교나 기법 장치가 아니라 독자와 소설을 연결시켜주는, 독자가 소설을 어떻게 수용하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이다.

일반적인 소설 연구에서 시점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플라톤의 『국가론』 제3권에서 ‘디에게시스(diegesis)와 미메시스(mimesis)’를 언급한 것<sup>18)</sup>에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 시점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브룩스와 워렌의 시점(point of view) 연구<sup>19)</sup>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주 단순하고 도식적인 네 가지 형태이긴 하지만, 분류의 기준이 선명하고 시점 간 개념이 분명하다는 이유에서 국어과 교육 과정에 전폭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분류법<sup>20)</sup>이다.

시점에 관한 논의는 웨인 부스(Wayne C. Booth)의 『소설의 수사학』을 계기<sup>21)</sup>로 해서 다원화되었다. 그의 시점 이론은 작품에 있어서 수사학의 목표인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점의 논의를 작품 주제의 전달이라는 전략적 국면과 관련시켜 보았는데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sup>22)</sup> 부스의 함축적 화자와 신빙성 없는 화자<sup>23)</sup>, 함축적 독자개념과 이들 사이의 ‘거리’ 개념은 1980

18)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의 방법으로 디에게시스(diegesis)와 미메시스(mimesis)를 설정하였는데, 이 양분법은 19세기 말 이후 영미 비평계에서 말하기(telling) 대 보여주기(showing), 요약(summary) 대 장면(scene)이라는 새로운 용어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19) 브룩스와 워렌은 서술자의 위치와 시각 혹은 소설에서 대상,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각, 관점의 개념을 바탕으로 시점의 사분법 체계를 완성하였다.

20) 국어과 교육과정은 이를 일인칭 주인공 시점, 일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삼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등장인물과 서술자의 역할에 대한 뚜렷한 구별이 없는 분류로 단순히 전지적 시점과 제한적 시점이라는 논의의 수준에 머문다.

21) 그는 시점을 작가로 하여금 자신이 갈등을 객관화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주제적 한정 의 양식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로 하여금 독자의 반응을 조종하고 그 독자의 마음속에 자신의 비전을 심어줄 수 있게 해주는 개연적 한정(moral definition)의 문제로 보았다. 그는 서술자는 소멸할 필요가 없고, 이야기의 방식도 객관적일 필요가 없으며, 그 효과도 애매성을 떨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논의를 펼쳤다. N. Friedman, 김병욱 역, 소설의 시점(point of view in fiction), 『현대 소설의 이론』, 예림기획, 1997, p.485.

22) 박재섭, 「한국 현대소설의 시점연구사」, 『현대소설 시점의 시학』, 한국소설학회 편, 새문사, 1996, p.85.

23) 이수정은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일인칭 서술을 고찰하여 서사문예의 근원상황으로서의 존재인 ‘서술자’의 중개적 역할에 주목하면서 일인칭 서술자의 신빙성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고찰은 대부분의 시점 연구에서 추구되는 ‘누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보다 정교하게 탐색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이수정, 「일인칭소설의 신빙성없는 화자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년대 채트먼의 담화구조론으로 계승, 발전되면서 1980년대 시점논의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브룩스와 워렌 분류의 문제 중 하나인 삼인칭으로 서술되면서도 시점이 등장인물 안에 있는 경우의 문제는 ‘초점화(focalization)’ 개념<sup>24)</sup>으로 해결된다. 쥘네트(Gerard Genette)는 ‘누가 보는가, 조망의 주체인 주인공이 누구인가’와 ‘누가 서술자인가, 누구의 목소리로 서술되는가.’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는 주체와 이야기하는 주체로 인해 시점 논의는 전환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는 우스펜스키(B. Uspensky)와 랜서(S.S. Lancer)에 의해 포괄적인 시점 이론으로 정립되었다. 우스펜스키<sup>25)</sup>는 소설 구성에 있어서 서술 화자 혹은 초점화가 물리적 시각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의미에 대한 해설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스펜스키보다 더 세부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서술 화자 이론을 발표한 연구자는 랜서(S.S. Lancer)<sup>26)</sup>이다. 랜서의 시점이론은 작가와 독자 사이의 소통성을 포괄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sup>27)</sup>

---

24) 시점이 ‘누가 말하는가’라는 목소리의 주체를 중시하는 개념인데 반해, 초점화는 ‘누가 보는가’라는 보는 주체 혹은 경험하는 주체를 중시하는 개념이다. 삼인칭 서술인 경우라 하더라도, 보는 주체가 인물 내부에 있는 경우에 이러한 주체를 초점화자(focalizer)라고 한다.

25) 우스펜스키는 시점을 하나의 관념적 평가적 위치, 사건들에 대한 묘사를 행하는 사람의 시공간적 위치, 지각적 특성이라는 심리적 차원의 수준, 순전히 언어적 의미의 차원 등 시점을 네 층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수준의 시점이 결합될 수 있으며 혹은 일관되기 지속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각 층위의 시점은 교차적으로 일치할 수도 있으며,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우스펜스키에 이르러 시점의 분석이 예술 텍스트의 구성원리라는 근본적 측면에서 시점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시점을 유형론이나 서사 규칙 추출로 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품 내의 다양한 시점 층위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B. Uspensky, 김경수 역, 『소설 구성의 시학』, 현대소설사, 1992.

26) 그녀의 시점체계는 여러 서사학자들의 연구업적을 토대로 구성한 것이 특징으로 서술자의 신분, 접촉, 입장(거리)의 세 측면을 갖는다. 랜서는 시점의 문제를 작품의 성공 여부로서가 아니라 소설 작품의 문학성을 설명하려는 기술적인 의미로써 시점 요소들의 구조적인 양상과 사회 현실의 재현 및 독자와의 전달 상황의 입장에서 시점 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려 하였다.

본 연구는 시점 교육을 소설 교육의 한 분류로 보고, 효과적인 소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점 교육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소설 교육 방법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작품을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감상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문학 교육이 이론으로만 제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에 접근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을 해석해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sup>28)</sup> ‘문학’ 영역은 아무래도 작품 수용 활동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강독 위주의 강술식 수업이 이루어지기 쉽다. 그러나 이런 주입식 형태의 수업으로는 교사가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습자가 교수-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시점 연구를 통해 소설 작품을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 지도안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소설 교육에 있어서 다양함을 몸소 체득하고 그 성취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

27) 랜서의 이론을 작가론에 원용한 논문으로 정재석의 「유년시점의 서사적 의도-김남천의 단편소설-」 이 있다. 정재석은 소설에서 유년의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들에 주목하여 그에 대한 서사론적 분석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시점 분석을 통해 작가가 유년인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들을 어떻게 형상화 하며, 그들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서사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려고 했으며 궁극적으로 텍스트에서의 시점 분석이 작가의 서사의도를 얼마만큼 밝힐 수 있는가를 서술하였다. 정재석, 「유년시점의 서사적 의도-김남천의 단편소설-」, 『현대소설 시점의 시학』, 한국소설학회 편, 새문사, 1996, pp.266~284.

28) 2007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문학 생산을 소통의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수용이나 생산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와 독자, 맥락, 작품 등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범박하게 볼 때 문학 활동은 작가, 작품, 독자, 맥락, 문학적 문법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복합적인 현상이다. 학습자는 수용자로서 이 소통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생산자로서 참여하기도 한다. 특히 생산 경험은 학생들의 문학 경험을 완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문학 교수-학습에서 빠뜨리기 어렵다.

시점이란 시각의 문제고, 또한 서술자가 어느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초점의 문제고, 또는 서술자가 작중 인물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로 들어가느냐 하는 서술자 능력의 문제기도 하다. 서술자가 어떠한 위치에서 작품을 서술하느냐에 따라 독자에게 주는 일련의 감동과 정서의 효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같은 사건과 성격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바라보는 각도와 사람에 따라서 그 효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이것을 서술하는 위치에 따라서 전혀 엉뚱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의 문제는 소설 구성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서술자가 텍스트 안에서 텍스트의 내용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은 일인칭 시점이고, 서술자가 텍스트 밖에서 텍스트의 내용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삼인칭 시점이다. 많은 작가들이 다양한 시점을 개발해 왔으며, 전통 시학의 논자들은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개의 경우 대여섯 개로 나누어 고찰한다.

시점에 대한 전통적인 분류법을 살펴보면, 현행 7차 및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브룩스와 워렌이 함께 쓴 『소설의 이해』에서 매우 단순화 되고 도식화 된 형태의 시점 분류를 채택하여 교육 지도 방안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양한 시점과 서술 양상을 보이고 있는 오늘날의 소설에 대해서 기존의 브룩스와 워렌의 방법론<sup>29)</sup>

29) 브룩스와 워렌의 이론은 ① 일인칭 주인공 시점, ② 일인칭 관찰자 시점, ③ 전지적 작가 시점, ④ 작가 관찰자 시점 등으로 불린다. 이때 일인칭 주인공 시점은 소설 속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서 인물과 서술의 초점이 일치한다. 이 시점은 심리 소설, 서간체 소설, 과거 회상식 소설 등에 많이 쓰인다. 이 시점은 독자에게 친밀감을 주기는 하나, 객관성의 결여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시점이다. 일인칭 관찰자 시점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부수적인 인물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의 시점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서술자는 주인공의 외면 세계만 묘사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인공 행동에 대한 해석, 설명자가 될 수 있다. 작가 관찰자 시점은 작가가 자기 주관을 배제한다. 등장인물의 마음속을 들여다봄이 없이 외부적으로 관찰된 동작, 표현, 대화만을 서술하는 것으로 삼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말로도 표현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작중 인물의 마음속에 마음대로 들어간다. 즉 작가가 모든 것을 알고 쓰는 시점으로서 모든 작중 인물들의 심리 상태, 감정, 행동

은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보면 여전히 우리의 시점교육은 브룩스와 워렌의 네 가지 시점 유형론에 기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 문학 교육에서 시점과 서술에 관하여 교육할 때 그동안 많이 활용해 왔던 브룩스와 워렌의 이론이 가진 한계에 주목하여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이론들을 섭렵하여 대안적인 시점 교육 내용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현 교육과정의 시점 교육 양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시점 교육 방법을 논의해보고, 나아가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제2장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 모델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적용시켜 보도록 한다. 교수-학습 모델은 총 2차시로 구성하여 서술자를 찾아 시점이 갖는 특성을 파악하고, 시점을 변용하여 텍스트 재창작하여 그 효과에 대해 파악하기 등으로 구성하여 각 차시에서 갖는 교육 효과 및 교사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모색하기로 한다. 특히 원작의 시점을 바꾸어 봄으로써 원작의 시점의 기능과 효과를 확인해 보는 학습 활동은 대안적인 시점 교육 내용과 방향을 제시해 주리라 기대한다.

---

등을 서술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것은 서술이 가장 자유롭기 때문에 장편 소설에서 주로 사용된다.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자는 인간이 아니라 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전지적 권한은 독자에게 스토리를 보다 잘 이해시키고 인식시키기 위해 작중 인물, 환경 및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작가가 너무 개입함으로써 독자가 상상하고 텍스트를 즐길 수 있는 여지를 반감시키는 면도 있다. 이재인, 『소설의 시점』, 『현대소설의 이해』, 문학사상사, 2003, pp.169~171.

## II. 현행 교육 과정의 시점 교육 분석

### 1. 제7차 교육 과정의 시점 교육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7차 교육 과정 및 7차 개정 교육 과정에서의 시점에 대한 교육이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sup>30)</sup>

	제7차 교육 과정 <sup>31)</sup>		제7차 개정 교육 과정
[8-문-3]	작품이 누구의 눈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8-문-3]	문학 작품의 세계가 누구의 눈을 통해 전달되는지 파악한다.
기본	시나 소설을 읽고, 작품이 누구의 눈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는지 말한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 표현이 뛰어나고 주제 의식이 분명한 작품</li> <li>-사회 문화적 상황이 잘 드러나는 작품</li> <li>-우리 고유의 정서나 언어 표현이 드러나는 작품</li> <li>-문화와 전통의 차이가 드러나는 작품</li> <li>-인간 삶에 대한 성찰이 잘 드러나는 작품</li> </ul>
심화	시의 화자나 소설의 시점을 바꾸어 작품을	내용 요소의	-시적 화자나 소설의 서술자 특성 이해하기

30)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국어’ 과목 7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교육 과정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다.



	다시 쓰고,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비교한다.	예	-반어(아이러니)와 풍자의 특성 이해하기 -화자나 서술자의 특성과 주제의 연관성 이해하기
--	--------------------------	---	--

[표1] 7차 교육 과정 및 7차 개정 교육 과정에서의 시점에 대한 교육

[중학교 2-1 『국어』, 대단원 6, 작품 속의 말하는 이] 에서 「나룻배와 행인」(시)과 「사랑손님과 어머니」(소설)에서 위의 교육과정이 반영되어 시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 작품 속에서 말하는이를 찾을 수 있다.
- 말하는이를 고려하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공통교과인 국어 과목의 전 영역 중에서 시점을 주제로 하는 단원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6단원(작품 속의 말하는 이)으로, 중학교 영역이라 작품의 수가 극히 제한되어 다양하지 않다. 소설 속의 말하는 이를 찾고 그 말하는 이에 대한 효과(왜 그러한 인물을 설정했는가)를 파악하려면 여러 가지의 소설을 나열하여 다양한 시점이 활용되는 것을 학습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작품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단원에서는 소단원 1에서 시(「나룻배와 행인」)를 다루고, 소단원 2에서 소설(「사랑손님과 어머니

31)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니」)을 다름으로써 시나 소설 각 분야에서 여러 작품에 대해 다양한 표현과 그 표현이 나타내는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사랑손님과 어머니」(1인칭 관찰자시점 : 편의상 교사용 지도서 혹은 참고서에 나타나있는 시점 분류(브룩스와 워렌의 사분법)를 사용하여 나타내면)와 「소나기」(3인칭 관찰자시점) 같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작품을 함께 실어 그 효과에 대해 논의하는 것과 같은 활동이 필요하다. 혹은 일인칭 시점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의도를 보인다면, 일인칭 즉 소설 속의 서술자가 주 인물이나 부 인물이나를 비교해 보는 활동도 의미가 있으나, 현재 교과서에서는 보조 혹은 심화 활동에서만 다른 작품을 제시하여 그 선택의 폭이 비교적 작다. 중학교 2학년 6단원 말하는이에서 「사랑손님과 어머니」와 함께 「동백꽃」이 제시되나, 이는 보충 · 심화 속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수업시간에 다뤄지지 않을 확률이 크다.

다음으로 ‘시점’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서 ‘시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거나, 협소하고 정태적인 형식적 장치로 설명<sup>32)</sup>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사건을 관찰하는 각도나 위치, 시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서술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함으로써, 모호한 정의에 머물고 만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서술자(화자), 작가, 내포작가 등의 개념이 동일시되거나 혼동되어 있

32) ‘소설 속의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 등을 누구의 눈으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야기 하는가를 소설의 시점이라 한다.’(중학교 『국어』 3-1)

‘소설에서 사건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시점이라 한다. 시점은 이야기의 진행, 사건의 전개 등이 누구의 눈을 통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박경신 외, 『문학(상)』, 금성교과서)

‘소설은 화자가 어떤 위치에 서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건도 전혀 다른 느낌을 불러일으키는데, 이처럼 서술자가 작품 속의 사실을 관찰하고 전달하는 위치를 시점이라 한다.’(구인환 외, 『문학(상)』, 한샘출판사)

오윤정, 시점 분석을 통한 소설 교육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p.20~21.

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교과서 6단원의 작품 속의 ‘말하는 이’에서는 ‘서술자’, 혹은 ‘화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말하는 이’로 설정하여 ‘누구의 눈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학습 목표를 삼았다. 이는 용어에 대해 명확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점 교육의 필요성만 인식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이다. 학생들은 ‘말하는 이’가 서술자인지, 작가인지, 내포작가인지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시점의 유형과 분류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몇몇의 학자들이 지적<sup>33)</sup>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의 문학 교육이 실제 문학 이론이 진행된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에 1960년대에 정립하고 반영되었던 기존의 시점 이론을 계속 고수한 채, 새로운 시점 이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개 시점의 종류를 일인칭 시점과 삼인칭 시점으로 구분하는데, 이것은 매우 모호한 분류로 판단된다. ‘시점’이란 사건을 인식하는 시각을 말하는 것인데, 일인칭이니 삼인칭이니 하는 것은 문장에 사용된 인칭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술자의 위치가 사건 내부냐, 외부냐의 결과로 사용되는 인칭대명사의 종류에 따라 명명된 일인칭 시점, 삼인칭시점이라는 용어는 근본적인 개념 표현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 혼란까지도 초래<sup>34)</sup>하게 된다. 따라서 서술자가 서사적 사건 외부에 존재하여 타인의 체험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기

33) 김동환은 국어시간에 진행되는 시점 교육을 한 예로 들어 현재 우리의 문학 교육이 과거의 상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현대소설 연구 43호, 2009), 박기범은 시점-서술 교육의 반성과 개선 방향(국어교육학연구 31권, 국어교육학회, 2008)을 통해 현재의 시점 교육이 지나치게 낡아 지금 시대의 소설 교육의 다양성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기에 보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34) 이우범, 「소설시점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p.27.

준에 의하여 ‘작품 내적 서술자’, ‘작품 외적 서술자’로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sup>35)</sup> 그러나 이는 단순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학 교육 형태에 맞추어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하거나 정확하고 심도 있는 분류의 기준을 세울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시점의 분류를 살펴보면, 브룩스와 워렌의 사분법<sup>36)</sup>에 관해서 과연 소설 작품 속에 나타나는 시점을 정확히 사등분하여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연구 방법에서도 소개되었던 브룩스와 워렌의 사분법이 일인칭과 삼인칭의 경우에 다른 분류 기준이 적용되어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삼인칭인 경우에는 좀 더 세분되어야 할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편적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주인공이나 부인물이나’에 따라 분류하고 삼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사건을 ‘내적으로 분석하는가’ 혹은 ‘외적으로 관찰하는가’에 따라 분류하고 있어 그 분류 기준이 다르다. 그리고 삼인칭 시점의 경우 ‘서술자가 작중 인물로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에 따라 다시 세분되어야 할 것이다.<sup>37)</sup>

반면에 개선된 사항<sup>38)</sup>도 발견할 수 있었다. 소설 이해를 위한 교육

35) 오윤정, 「시점 분석을 통한 소설 교육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p.22.

36) 브룩스와 워렌의 사분법표는 다음과 같다.

	사건의 내면적 분석	사건의 외면적 관찰
이야기 속의 등장 인물로서의 서술자	①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1인칭 주인공 시점)	② 부수적 인물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한다. (1인칭 관찰자 시점)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 아닌 서술자	③ 분석적이거나 전지적인 작가가 사상과 감정까지 파악하여 이야기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	④ 작가가 외부 관찰자로서 이야기를 한다. (3인칭 관찰자 시점)

37) 박종홍, 『현대소설론』,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999, p.15. 참고.

38) 이 부분은 기존의 논문과 교과서 및 지도서를 연계하여 살펴보던 중, 다소 개선된 사항을

방법을 살펴보던 기존의 시점 교육 방법 또는 소설 교육론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점을 현 교과서에서 수용하여 학습 활동을 수정하고 그 보완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학습 활동과 현 학습 활동을 비교해보자.

-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성격이나 행동을 누가 어떤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가?
- 이 소설에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사람은 소설 속의 인물인가, 소설 밖의 인물인가?
- 서술자는 객관적 위치에 있는가, 주관적 위치에 있는가?

위의 문항은 기존의 중학교 『국어』 3학년 1학기에 수록된 사랑손님과 어머니 학습 활동에서 제시된 문항으로 시점 및 서술자에 대한 논의가 작품의 의미구조와 연결되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형식적인 장치로서 단편적 지식으로만 제시되었다.<sup>39)</sup> 이것은 시점이 소설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어떤 유형의 시점이나<sup>40)</sup>를 알게 하는 단편적인 지식 수준의 학습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작가 및 작가를 둘러싼 현실 세계, 작품의 서사적 세계, 독자를 매개해주는 중개자로서의 서술자 개념을 통하여 소설을 이해한다면, 소설의 의미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교과서의 학습 활동에서는 서술자는 중개적 역할을 지닌 것이 아니라 고정된 작품 내적 요소로서만 인식되기 때문에 작품의 의미 구조로 연결되

---

보이기에 정리하여 밝힌다.

39) 김상옥, 『소설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pp.74~75.

40) 대표적인 질문의 예로 “이 소설의 시점은?”, “이 소설에서 활용된 시점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이 이에 해당되며, 교과서를 제외하고서라도 시중의 각종 학습지나 학습서, 자습서 등에 주로 등장하는 질문이다.

지 못하고 단편적인 지식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학자들이 시점 교육 방법에 있어서 서술자에 대한 단편적인 물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소설의 서술양상을 파악하는 과정과 그 결과로써 서술자 및 시점의 특성을 학습자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옥희라는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소설 속의, 혹은 소설 밖의 서술자가 이야기하도록 작품이 구성된 이유는 무엇인가?

위와 같은 질문은 작가가 서술자를 주인공이나 서사 사건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내세움으로써 얻는 효과와 의도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작품 한 부분의 시점을 학습자인 중학교 3학년(현재 중학교 2학년에 반영)의 관찰자 시점으로 바꿔 본다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하는 삼인칭 시점으로 바꾸어 쓰는 활동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두 글이 서술 시각에 의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sup>41)</sup>

이와 같은 지적을 반영하여 수용된 현행 교과서의 학습 활동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소설의 말하는이는 누구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써 보자.
-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말하는이로 인해 미소를 짓게 된다. 이처럼 말하는 이로 인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을 찾아 아래와 같이 말해보자.<sup>42)</sup>

41) 전국국어교사모임, 『함께 여는 국어교육』, 전국국어교사모임, 1998 가을 호, p.120.

42)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서 어머니는 갑자기 달걀을 많이 사기 시작했다. 옥

- 이 소설에서 말하는이를 어린아이로 설정한 이유와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말해 보자.

이처럼 학습 활동의 문항들은 기존의 연구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다소 반영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임시방편일 뿐이다. 교과서 학습 활동에는 제시되어 개선된 듯 보이지만 교과서 지도서에는 역시 시점을 사분법 속에서 도출해 내는 활동과 시점을 사분법 체계 아래서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형성 평가 1. 소설의 시점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짝지어 보자.

(가) 1인칭 관찰자 시점	• • ㉠	작품의 말하는이와 주인공이 일치하며, 작가와 등장인물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
(나) 1인칭 주인공 시점	• • ㉡	작가가 마치 신처럼 인물의 심리나 사건의 과거, 미래를 서술한다.
(다) 3인칭 관찰자 시점	• • ㉢	서술자인 '나'가 부수적인 인물이 되어 소설 속의 중심인물의 심리 변화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라) 전지적 작가 시점	• • ㉣	말하는이가 객관적인 위치에서 인물들이 드러내 보이는 대로 관찰하고 전달하는 형식이다.

[표2] 중학교 2-1 6단원 '작품 속의 말하는이' 관련 형성 평가 1

회는 어머니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달걀을 많이 먹을 수 있어 마냥 좋아한다.' 제시된 지문이 아래의 지문이다.

※ 형성 평가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만화책에서 옛날 기사들 얘기를 읽은 적이 있다. 어머니가 공주님이라면, 아버지와 나는 그 공주님을 보호할 사명감을 지닌 기사들이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와 나는 뜻이 통했고, 우리는 언제라도 어머니를 위해 출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녀석과 결투를 벌이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더러운 아이를 때려준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다. 그날 나는 저녁 무렵의 일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꿈 속에서 걱정하다가 문득 깨어난 것인지도 모른다. (하락)

위기철, 「어머니의 용맹스러운 기사」 중에서

- (1)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2) ‘나’는 무엇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가?
- (3) 제목에 나타난 ‘기사’란 누구를 가리키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 (4) 이 소설의 시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짐작하게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표3] 중학교 2-1 6단원 ‘작품 속의 말하는이’ 관련 형성 평가 2

중학교 2학년 1학기 6단원 ‘작품 속의 말하는이’ 관련 『국어 교사용 지도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형성 평가 항목을 예로 들어보자.

형성 평가 2의 (4)의 정답은 1인칭 주인공 시점, 그것을 짐작하게 하는 단어는 ‘나’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소설에서 ‘나’는 사분법에서 조차 일인칭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의 두 분류에 속해있으



나, 형성 평가에서 ‘나’가 지닌 특성을 설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단어 하나로만 파악하게 된다면 시점에 대한 이론적 체계가 성립되지 않은 학습자는 ‘나’로 인해 시점 정립에 혼동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학습 활동의 겉모습은 변화된 듯 보이나, 실제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참고하는 지도서나, 그 밖의 여타 참고서 등에서는 여전히 시점은 사분법 체계로 구분하여 단순하게 끼워 맞추는 식의, 즉 고정된 작품의 내적 요소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작품의 의미구조의 파악까지 연결시키지 못하는 양상을 초래한다.

이상에서 교육 과정 및 교과서에 나타난 시점 교육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시점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고, 작품을 단순하게 사분법 체계 속에서 다루고 있었고, 시점 이해 교육에 관한 측면에서는 학습 활동을 예로 보아 시점 활동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예전 교육 방식을 고루한 채,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결국 소설 교육의 측면에서 소설 속의 시점의 개념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시점 유형에 대한 구분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즉, 시점 교육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 2. 시점을 통한 소설 교육 방법의 제언<sup>43)</sup>

### 1) 서술자의 존재 인식 강조

학습자가 소설을 읽으면서 처음 단계에 해야 할 일은 소설 속에서의 서술자의 존재를 인식하는 일이다. 서술자는 작가가 창조한 허구적 존재로서 실제 작가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저학년의 학습자들에게서 작가와 서술자의 혼동을 볼 수 있다. 즉 소설에서 서술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개념이 시급하다.

또한 학습자가 서술자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서술 양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체로 극적 제시보다는 요약서술의 경우에 학습자는 서술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서술자의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채트먼<sup>44)</sup>이 제시한 서술자 존재 표지들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

43) 류은숙, 「중학교 소설 단원 시점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63~69. '1)서술자의 존재 인식, 2)서술자의 위치와 특성 파악, 3)시점의 유형과 특성 파악'의 틀을 원용하여 재구성하였다.

44) 여기서 잠깐 채트먼의 시점에 대한 논의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는 서술자가 인물이 아닌, 지각적 시점을 지닐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술자는 결코 스토리 세계 속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 속의 어떤 것도 '볼'수 없다는 것이다. 채트먼은 인물의 시점은 항상 스토리 세계의 내부에 있지만 서술자의 관점은 스토리와 담화의 경계 바깥에 존재하므로, 그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또한 서술자는 언제나 자신의 관점 또는 개념적 시점으로 스토리를 서술하며, 특정인물의 의식에 밀착된 서술자라 할지라도 그의 지각적 시점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인물의 시점(filter)과 서술자의 관점(slant)을 각기 다른 용어로써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채트먼의 이런 주장은 목소리의 경우와 유사하게 그가 시점을 문자 그대로 눈으로 보는 행위와 직접 연결시킨 것과 관련된다. 뉴네트를 비롯한 최근의 이론에서 시점 대신 초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시점의 문자적 의미가 지닌 시각적 인상을 피하고 감정적, 도덕적, 이념적 태도까지 포괄하기 위해서이다. 초점화 이론은 이처럼 폭넓은 은유적 의미의 시점(초점)과 서술자의 언어 자체를 구분하는데 기초한다. 채트먼은 시점이 지닌 다양한 함의들이 지나치게 은유적이라는 데 불만을 표현하면서, 이 같은 은유적 의미의 시점으로부터 인물의 실제적인 지각적 시점을 구분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고는 영상 서사에 대한 그의 각별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초점화 이론에서 강조하듯이 소설에서 중요한 구분이 말하는 자와 보는 자 사이에 있다면, 영화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구분에 촬영을 하는 카메라의 시선과 영화 속 인물의 시선 사이에 존재한다. 채트먼은 기존의 시점과 초점화 이론이 영화에 적용되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영화에서 얻은 발상을 소설에까지 확장하여 보다 보편적인 시점 이

적이다. 채트먼은 소설에서 서술자가 존재한다는 표지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sup>45)</sup>하고 있다.

- ① 배경묘사
- ② 작중인물에 대한 판정
- ③ 시간적 요약
- ④ 작중 인물의 한정
- ⑤ 작중 인물이 말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고
- ⑥ 해석, 판단, 일반화 등에 의한 논평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작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 중전 아파트는 살기가 편하고, 시설이 고급이고, 환경이 아름답기로 이름이 난 아파트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나는 물건은 물론,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까지 없는 것 없이 갖추어 놓은 슈퍼마켓도 있고, 어린이를 위한 널찍한 놀이터도 있고, 아름다운 공원도 있고, 노인들을 위한 정자도 있고, 사람의 힘으로 만든 푸른 연못도 있습니다.

박완서, 「옥상의 민들레꽃」 46)

---

론을 세우고자 한 것이다. 채트먼의 시점이론은 소설보다는 영화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설에 까지 무리하게 적용될 경우 이미 정착된 개념과 용어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와 소설에 모두 적용되는 시점 이론을 모색한 그의 시도 자체는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출처] 박진 '채트먼:영상서사로 확장된 시학' | 작성자 특특, <http://blog.naver.com/iocean74>

45) S. Chatman, 김경수 역,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 이야기와 담화』, 민음사, 1990, 5장 참조.

46)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1-1』, 2008, p.254.

지금 중학교에 다니는 외삼촌은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집에는 끼니때 외에는 별로 붙어 있지를 않으니깐 어떤 때는 한 주일씩 가도 외삼촌 코빼기도 못 보는 때가 많으니깐요, 깜박 잊어버리기도 예사지요, 무얼.

우리 어머니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들도 없이 곱게 생긴 우리 어머니는, 금년 나이 스물네 살인데 과부랍니다. 과부가 무엇인지 나는 잘 몰라도, 하여튼 동리 사람들이 나더러 ‘과부 딸’이라고들 부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과부인 줄을 알지요.

나는 그 아저씨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몰랐으나 첫날부터 내게는 퍽 고맙게 굴고, 나도 그 아저씨가 꼭 마음에 들었어요.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47)

인물의 내면에 관한 서술자의 설명 이외에도 시간이나 사건의 요약적 설명, 배경이나 인물의 직접적 묘사 등은 이를 수행하는 서술자의 존재를 겉으로 드러나게 한다. 스토리에 관한 주석적 설명 또한 드러난 서술자의 명백한 표지이다.

만일, 김 첩지가 주기를 떠지 았았던들 한 발을 대문 안에 들여놓았을 제 그 곳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 같은 정적에 다리가 떨렸으리라. 쿨룩거리는 기침 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다만,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뜨리

47)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2-1』, 2008, p.221, p.224.

는—깨뜨린다느니보담 한층 더 침묵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 짹짹 하는 그윽한 소리—어린애의 젖빠는 소리가 날 뿐이다. 만일, 청각이 예민한 이 같으면, 그 짹짹 소리는 빨 따름이요, 꿀떡꿀떡 하고 젖 넘어가는 소리가 없으니, 빈 젖을 뺀다는 것도 짐작할는지 모르리라.

혹은, 김 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때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이년.”

이라고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 오는 무시무시한 증을 쫓아 버리려는 허장성세(虛張聲勢)인 까닭이다.

현진건, 「운수 좋은 날」 48)

만일 서술자가 인물이 말하지 않았거나 생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서술자의 존재는 더욱 가시화될 것이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국어』 6단원 한국 현대 문학의 이해에 수록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서는 인물보다 우위에 있는 서술자의 지식과 권위가 드러난다.

위와 같은 표지가 잘 나타는 소설은 서술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이다. 서술자는 서술된 사건의 밖에서 전체를 조감하여 인물의 모습이나 행동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시간적 요약을 하며, 독자에게 말을 건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소설 작품을 읽으면서 학습자는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서술자가 소설 내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48)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3-1』, 2008, p.251~p.252.

## 2) 서술자의 위치와 특성 파악

서술자의 존재를 인식한 후, 그 다음에 할 일은 서술자가 과연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서사적 사건의 외부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내부에 존재하는지는 문장의 인칭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표면적인 문장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각 유형에서 작품의 의미구조가 다르게 나타나고, 그것에 따라 독자의 수용 과정도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교과서에서 ‘이 소설에서 말하는 이를 어린아이로 설정한 이유와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말해 보자.’ 등과 같은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히 학습 활동 문항 중 하나의 문항으로 간략히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시점이 가지는 특성 및 소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다 총체적으로 살펴야 할 문제이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6단원 ‘작품 속의 말하는 이’의 단원의 길잡이는 단원에 앞서 ‘글쓴이는 작품을 쓸 때 작품 속에 말하는 이를 설정하고 그를 통해 독자들에게 말하려는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왜 말하는 이를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혹은 어떻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보충 심화에도 말하는 이를 고려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연습 활동을 구성하였다. 각자 흥미 있는 것을 골라 읽으며 말하는이에 대해 공부해 보자.’로 단편적으로 시점에 대한 이해를 요할 뿐이지 여러 작품을 통해 시점의 효과를 비교하는 것은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작품 외적 서술자인 삼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서사적 사건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서사세계 외부에 존재한다. 따라서 서술자는 주로 타인의 체험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며, 어느 한 인물에만 서술자의 시각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학습자는 서술자 자체보다는 서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되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서술자는 서사적 사건을 전개해나가는 동적 요소로서, 서술자가 어떠한 시각과 태도로 인물들을 바라보고 서술하는가에 따라 소설의 의미를 표출하는 양상이 달라진다. 결국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양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

작품 내적 서술자는 바로 작중 인물 중 '나'로 등장하며 서사적 사건에 직접 참여한다. 따라서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게 되며, 서사적 사건은 특정한 인물인 작중 서술자의 시각을 통하여 제시된다. 서술자는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토대로 서술하여 서술자가 보고 느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경우 학습자는 작중인물로서 등장하는 1인칭 서술자 '나'에 대하여 매우 가깝게 느낄 수 있고 때로는 동일시를 체험하게 된다. 더 나아가 허구적 인물이 아닌 실제 인물처럼 생생하게 인식할 수 있다. 반면에 학습자는 '나'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세심하게 평가해야 한다. 때로는 '나'의 외면적 특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특성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증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 3) 시점의 유형과 특성 파악

소설 속에서의 서술자의 위치와 특성을 파악한 다음 단계로는 학습자가 삼인칭과 일인칭 시점을 더 세밀하게 분류해 보는 과정이다. 즉 시점의 유형을 파악하는 학습 단계이다. 작품 외적 서술인 삼인칭 시점은 어떤 입장과 태도로 서사세계를 바라보고 서술태도와 누가 바라보는 초점화의 주체에 따라 전지적 작가 시점과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구분된다. 서술자가 서사적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서술자가 곧 초점의 주체로 나타나면 전지적 시점이다. 즉 서술자가 서사적 사건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면서 거기에 자신의 주관적 논평을 개입시키는 것이다. 독자는 작중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직접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서술자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작가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가 주로 객관적인 전달자로서 사건 진행만을 충실하게 서술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작중 인물이 초점 주체가 되고, 서술자는 초점 주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단순히 전달하는 위치에 놓인다. 따라서 독자는 서술자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작중인물의 행동과 대화 등에 주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전지적 시점은 현대소설보다는 고소설에 많이 나타나며, 현대소설에서는 주체의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는 작품에서 주로 나타난다. 전지적 시점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자의 주된 활동은, 초점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는 서술자의 역할을 파악해내는 것이다. 서술자가 각 인물들과 배경, 서사적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와 관점을 지니고 있는지 서술자의 주관적 견해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고소설에는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이 강하게 드러났으나, 현대소설에서는 리얼리즘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충실하게 묘사하려는 경향이 우세하여 많은 작품



들이 객관적 시점의 형태를 취한다.<sup>49)</sup> 서술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작중세계를 그려나가므로, 현실상황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작품 내적인 서술자에 의한 일인칭 시점은 초점화 및 서술태도에 따라 일인칭 주인공 시점과 일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구분된다.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초점주체와 초점대상이 일치하는 경우가 주체적 시점(주인공 시점)이다. 반면에 서술자가 다른 작중인물에 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초점주체와 초점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일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주인공 시점에서는 작중서술자의 행동과 성격, 서술자가 다른 인물과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반면에 관찰자 시점에서는 작중인물인 서술자의 관찰 태도와 시각을 통하여 작품의 의미가 드러나므로, 서술자가 주 인물을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시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일인칭 시점에서는 '나'라는 서술자의 특성에 따라 작품을 읽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한 개인의 솔직하고 내밀한 독백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독자는 친근하게 서술자의 이야기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을 수 없는 서술자를 등장시켜 독자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면서 서술자의 이야기에 재해석을 요구함으로써 주제를 표출하는 일인칭 소설도 존재한다.

학습자는 소설을 읽으면서 서술자와 서술에서 드러나는 의미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작가와도 연결을 지어 해석해봐야 한다. 서술자와 실제 작가는 물론 동일한 존재가 아니므로, 관련성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지 그대로 대응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 실제 작가와 차이

---

49) 박재섭, 앞의 책, pp.81~83.

를 보이는 경우에는 어쩌서 그러한 차이가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한다. 소설 작품 속에는 실제로 작가가 소설 속의 인물이 되어 소설을 진행해 나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소설 속의 인물이 작가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은 매우 드문 예이다. 그러나 실제로 저학년의 학생들은 소설 속 인물과 실제 작가와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이는 소통 행위로서의 문학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인식<sup>50)</sup>한 예이다. 또한 수필이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루는 문학이라고 할 때, 작가와 소설 속 인물이 중첩되는 작품과 수필의 차이점을 통해서 학습자가 소설과 수필을 구별할 수 있는 혹은 더 이상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지도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

소설은 ‘서술자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문학’이라는 구조적 본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서술자가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방식은 작품의 의미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학습자는 서술자의 서술이 갖는 특성에 따라 그 작품의 의미 구조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점은 학습자의 작품 읽기 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즉 학습자가 시점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활동을 통하여 소설을 이해·감상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소설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소설 교육 현장에서는 시점을 소설의 형식적 장치로 이해하여 문학 지식의 대상으로만 다루어 왔다. 즉 시점을 작품의 의미 구조와 연결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

50) 국어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8-문-2] 소통 행위로서의 문학의 특성을 안다. [기본] 문학이 작품을 중심으로 작가와 독자가 의미를 서로 주고받는 상호 작용임을 설명한다. [심화] 작품의 수용이 작품 세계와 독자의 삶이 만나는 과정임을 설명한다. [10-문-4] 작가, 작품, 독자의 관계를 알고, 이를 작품 수용에 능동적으로 활용한다. [기본] 작가, 작품, 독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작품을 능동적으로 수용한다. [심화] 작가, 작품, 독자의 관계를 알고 작품을 읽는 경우와 작품을 모르고 읽는 경우의 차이점에 대하여 토론한다. (7차 국어과 교육 과정, p.84, p.110.)

라서 이를 유념하여 시점의 특성에 따라 소설을 이해하고 감상할 때 학습자가 얻을 수 있는 소설 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 3. 시점을 통한 소설 교육의 기대 효과

#### 1) 의사 소통 구조에 적극적 참여

소설 교육은 학습자가 소설 작품을 적극적으로 읽고 의미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중시되어야 한다. 학습자가 서술자의 이야기를 접하며 서술자와 의사 소통을 하면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해나가기 때문이다. 시점과 의미 구조의 관계라는 측면을 소설 교육에서 수용한다면, 학습자들이 소설을 읽어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작품의 의사 소통 구조에 참여하여 의미 구조를 읽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작가와 독자를 연결하는 의사 소통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서술자의 존재를 파악하여 그에 따라 작품을 읽는다면, 학습자는 서술자의 이야기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술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거리를 두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의사 소통 문제로서의 시점에 대한 이해는 ‘서술자의 존재 파악하기’에서 시작된다. 작품 속에서 인물을 소개하고 사건을 전달하며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 등 작품과 독자 사이에서 의사 소통을 담당하는 존재로서 서술자를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다. 의사 소통자로서의 서술자는 독자에게 인물의 이야기에 따라가게 하고 배경에 몰입하게 하는 독서를 유도한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내세운 작품<sup>51)</sup>은 서술자가 어린아이의 생각을 자신의 언어로 해석하여 전달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인물의 말이나 생각에 변형을 가하는 서술자는 그 변형의 정도만큼 독자나 학습자에게 더 잘 지각되는 것이다.

51) 주로 저학년 교과서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양상으로, 비슷한 또래의 동질감을 체험하기도 하고,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점에 있어서 소설의 해석과 작가가 왜 그러한 서술자를 소설 속에 등장시켰는지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도와준다.

## 2) 주제 의식을 해석하는 통로

소설 교육에서는 소설의 형식과 내용이라는 두 측면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침이 없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소설의 형식적 측면의 습득에만 치우치게 된다면 소설의 진정한 의미 및 소설 감상에 제약을 지닐 수 있고, 소설의 내용적 측면만 살핀다면 소설을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해석하는데 제약이 따르게 된다.

시점을 중요한 개념으로 살펴보는 교육을 함으로써 작가의 현실 인식과 작품의 내적 구조, 독자를 연결하는 매개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자는 시점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작품의 형식적인 요소들을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으로 구체화된 작가의 주제 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시점은 주제 의식을 해석하는 통로로서 구실을 한다. 학습자가 시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소설을 분석적 접근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점의 특성을 이해하여 소설 이해에 있어 적합한 능력을 기르는 데 관련된다.

제3장의 시점을 활용한 교수-학습 모형과 실제에서도 다루겠지만, 고등학교 교과서 속 「봄·봄」을 예로 들어보자. 작품 속 서술자가 자신의 느낌과 경험을 말하는 형식의 소설이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작품 속 주인공들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게 된다면, 작품이 가지는 해학성과 「봄·봄」이 지니는 나아가 김유정 소설이 지니는 소설의 멋이 반감될 것이다. 학습자는 시점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여 작품이 가지는 작품 고유의 특성, 아울러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즉, 학습자는 시점의 특성을 살핌으로써 주제 의식을 파악하여 소설을 바르게 이해, 감상할 수 있다.

### 3) 의미 구조의 이해

소설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소설 읽기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때, 시점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은 문학 교육에 있어서 그 효용성이 매우 크다. 즉 소설의 언어적 표현 양상을 통해 작품의 의미 구조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소설의 형식적 측면과 의미 구조 측면을 연결하는 교육의 원리로서 의미가 클 것이다. 학습자에게 시점의 특성을 이해하고 시점이 작품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게 하면, 이는 작품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고 소설을 바르게 이해, 감상하는 원리를 제공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작품 속의 시점이 표현의 양상과 작품의 특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시점을 통하여 소설 작품을 학습하는 것을 소설 작품의 의미 구조에 대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소설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원리를 제공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52)</sup>

---

52) 이재건, 「시점을 통한 소설 교육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66~70. 참조.

### Ⅲ. 시점 활용 교수-학습 모형과 실제

구체적인 교수-학습 모형을 살펴보기 이전에 교사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면, 이 단계에서 교사는 소설에서 말하는이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소설의 내용이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제 활동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고 말하는이를 바꾸어 소설을 감상했을 때 달라지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작품의 수용 활동은 발표, 토의·토론, 협동 학습, 감상문과 비평문 쓰기, 문학 갈래와 매체의 변환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지도해야 한다. 또한 문학 수업은 작품 수용 활동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강독 위주의 강술식 수업이 이루어지기 쉬울 수 있으나, 강술식 수업으로는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학습자가 교수-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유념하여 교수-학습 모형은 협동학습과 텍스트 변용 학습을 함께 적용시키고자 한다. 문학 교육은 상상력과 감수성을 길러 수준 높은 소통 능력을 함양함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등장인물의 심리를 추리 상상하는 활동, 학습자의 감수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작품을 구상하는 활동, 작품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구상한 작품이나 작품을 추리 상상하여 이해한 결과나 작품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평가한 결과를 대상으로 삼아 급우들과 토의하는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이 활동들에서 문학이 인간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로서 특히 문학과 고유한 관련이 있는 상상력과 감수성을 기르며, 그것이 자연스럽게 타인 또는 세계와의 수준 높은 소통으로 이어짐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텍스트 변

용 활동은 작품의 비판적이며 창조적인 수용은 그 작품의 다양한 재구성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 문학의 수용을 창조적 재생산으로 전환시켜 문학적 표현 욕구와 능력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기존 텍스트를 재해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변용에서 나아가 재구성을 성취했는지를 평가하는 글쓰기활동 또는 토론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이런 유기적인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모듈 구성원 간의 협동을 강조하며, 전체 학습 집단 내에서 유기적인 모듈 활동을 하여 학습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앞장의 시점 교육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 모델을 구성하여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적용시켜 보도록 한다. 교수-학습 모델은 총 2차시로 구성하여 시점이 갖는 특성 파악 및 시점 변용하여 텍스트를 재창작하고 그 효과에 대해 파악하기 등으로 구성하여 각 차시에서 갖는 교육 효과에 대해 모색하기로 한다. 특히 원작의 시점을 바꾸어 봄으로써 원작의 시점의 기능과 효과를 확인해 보는 학습 활동은 대안적인 시점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해 주리라 기대한다.



## 1. 서술자 파악과 시점 이해

이 단계는 시점 교육에 있어 도입 단계로 우선 ‘서술자의 존재 인식 및 서술자의 위치와 특성을 파악’한 후, ‘시점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 하도록 한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자가 소설을 읽으면서 처음 단계에 해야 할 일은 소설 속에서의 서술자의 존재를 인식하는 일이다. 서술자는 작가가 창조한 허구적 존재로서 실제 작가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서술자의 존재를 인식 한 후에는 서술자의 위치를 찾고 그 위치에 대한 의미 구조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유념하여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로 학습자가 서술자 찾는 활동을 반영한 교수-학습 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단원명	3. 다양한 표현의 이해 (1) 봄봄		차 시	1 / 2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설을 읽고 소설 속 서술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술자의 위치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li> <li>● 시점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li> </ul>			
수업 단계	교수-학습 활동			비고
	교사활동	학생활동		
도입 (5분)	▷ 인사 - 학습 동기 유발 -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내용 안내	▶ 인사 - 학습 동기 유발 - 학습 목표 숙지 - 학습 내용 숙지		

<p>전개 (10분)</p>	<p>▷ 서술자에 대해 설명 - 서술자의 개념 및 시점의 특성에 관한 질문을 통해 개념 확인</p>	<p>▶ 서술자에 대한 개념 확인 - 전 학년에 학습한 개념을 떠올리며 정리 및 재정립</p>	<p>읽기 전 활동</p>
<p>활동 (20분)</p>	<p>▷ 소설 속 서술자 존재 인식 - 작품 내적 서술자와 작품 외적 서술자에 대해 설명</p> <p>▷ 시점 파악 - 서술자인 소설 속 인물을 통해 시점을 파악</p> <p>▷ 시점의 특성 이해 - 시점에 종류와 특성에 대해 설명</p> <p>▷ 내용 학습 및 주제 찾기 - 사건의 전개 과정 및 배경 찾기 - 등장인물의 성격 파</p>	<p>▶ 소설 속 서술자 존재 인식 - 서술자의 존재를 인식 한 후, 작품 내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통해 소설의 서술 양상을 파악</p> <p>▶ 시점 파악 - 서술자인 소설 속 인물을 통해 시점을 파악</p> <p>▶ 시점의 특성 인식 - 중학교에서 배운 작품들에 적용시켜 이해</p> <p>▶ 내용 학습 및 주제 찾기 - 사건의 전개 과정 및 배경 파악 - 등장인물의 성격을</p>	<p>읽기 중 활동</p>

	악하기 - 주제 파악하기	파악하며 각 성격이 갖는 특징 찾기 - 주제 파악하기	
평가 (10분)	▷ 평가지 배부	▶ 평가지 확인	평가지 작성
정리 (5분)	▷ 수업 정리 ▷ 다음 차시 예고	▶ 수업 정리 ▶ 다음 차시 준비	

[표4] '서술자 파악과 시점 이해하기' 교수-학습 지도안

## 1) 도입

이 수업의 학습 목표는 “소설을 읽고 소설 속 서술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술자의 위치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와 ‘시점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로 설정하였으므로, 도입 부분에서 학습 목표를 제시하며 50분 동안 수업할 학습 내용을 안내한다. 또한 교사는 학습 동기 유발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 동기 유발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고,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학교 학생에게 어려운 작품을 소개한다거나, 학습자의 흥미가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 여기에서는 대중가요를 통해 ‘대중가요 속의 말하는이’를 찾거나 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본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학습 목표를 부여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2) 전개

본격적으로 작품을 읽기 전에 하는 활동으로 교사는 서술자에 대해 설명한다. 서술자의 개념 및 서술자의 역할을 설명하되, 여기서 기존의 브룩스와 워렌의 사분법적 개념 설명이 아닌 직접 작품을 예로 들어 서술자의 위치에 따른 시점을 설명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사분법에 달혀있는 지식 전달 위주의 설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서술자의 개념 및 시점의 특성에 관한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져 학습자가 사전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얻고, 질의응답을 통해 개념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진다. 학생들은 서술자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며 전 학년에 학습한 개념<sup>53)</sup>을 떠올리며 개념 이해를 하며 본시 활동을 할 준비를 한다.

## 3) 활동

1차시의 본시 학습에서의 활동은 작품을 읽으면서 서술자의 존재를 파악하고 위치를 찾아 시점에 대한 이해와 시점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는 활동과 내용 학습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봄 · 봄」의 지문의 분량을 볼 때, 수업 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읽는 것은 시간 관계 상 전 지문을 읽기 어려워므로, 전 시간에 사전 공지하여 읽어오도록 지시하여 수업에 지

---

53) 전 학년과의 관련성을 보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교과서(7차 교육 과정)에서 6단원, 작품 속의 말하는 이에서 시점 관련 내용을 다뤘다. 여기서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과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통해 시와 소설에 나타나는 서술자와 그에 대한 개념을 배웠으므로 학생들은 기본적인 시점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사전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교사는 그에 맞춰 학습 목표나 학습 활동을 구성해야 한다.

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시에서는 미리 읽어왔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도록 하며 밑줄 긋기 활동과 같은 활동으로 서술자의 존재가 드러나는 영역을 찾는다면, 특정 영역을 제시하며 그 영역 속에서 서술자가 나타나는 부분을 발췌하여 발표한다면 하는 활동으로 서술자의 존재를 파악하고 그 위치를 찾는 활동을 한다. 서술자를 찾은 후에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품 속에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알아보는 학습을 해야 한다. 작가가 글을 쓴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서술자를 내세워서 이야기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사건의 전개 양상과 배경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음 차시에서 텍스트 변용 즉, 시점을 변용하는 활동을 할 때에는 각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sup>54)</sup>하는 것이 다른 인물로의 변형을 꾀하는 일이므로 사건의 전개 과정 및 배경 학습을 한 후에는 읽은 후 활동을 하기 전에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활동을 잠시 갖도록 한다. 교사는 각 등장인물의 성격이 드러난 부분을 학생들로 하여금 찾게 하여 인물의 성격 파악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건과 등장인물의 파악이 끝나면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제재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는 활동<sup>55)</sup>을 하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

54) 소설 속에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지닌 인물들이 등장하여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학습자는 작품 속의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등장인물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활동을 함으로써 작가가 제시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다. 등장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활동은 각 텍스트의 내용 학습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여기서는 내용 학습과 더불어 시점 변용 활동에서 각 인물을 적용함으로써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55) 시점을 변용하여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다. 텍스트 안의 인물, 사건을 바라보고 전하는 서술자의 태도에 따라 주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용 학습 부분에서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4) 평가 및 정리

활동을 마무리하고 본시 학습 시간 동안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이해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교사는 사전에 평가지를 작성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지에는 다음 차시에 하게 될 '시점 변용 활동'에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하여 학습자가 평가를 통해 본시 수업 이해를 평가하며 동시에 다음 차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구성한다. 예를 들면 시점에 관한 항목을 설정하여 시점에 대한 특징이나 작품 속 서술자를 되새길 수 있게 하고, 등장인물의 각각의 성격에 대한 질문 항목을 통해 등장인물을 정리하도록 돕는다. 또한 사건의 배경과 주요 갈등에 대한 질문으로 전체 글 속의 사건, 배경, 등장인물을 모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주제를 적어보게 하여 학습자가 본시 학습을 충분히 소화하였는지 알아 볼 수 있게 한다. 평가가 끝나면, 간단하게 질의응답으로 평가를 확인하고 다음 차시 예고와 학습자가 해야 할 준비를 안내함으로써 본시 학습 정리를 한다.

## 2. 시점 변용을 통한 텍스트의 재창작과 효과

제7차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기존의 교육 과정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창작’ 영역이 강화되어 학습자가 문학 작품을 읽고 작품을 통해 새로운 문학 작품을 생산해 내는 학습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가 텍스트 속에서 능동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창의력을 신장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로 인해 제7차 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의 학습 활동 부분에서는 제6차 교과서와는 달리 ‘창작’ 부분의 학습 활동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창작 능력을 향상 시키는 목적의 학습 활동은 다양하나 그 중에서 특히 새로운 텍스트를 창조해 나가는 활동 중 변용과 관련된 일련의 학습 활동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7학년 교과서 속의 텍스트 변용 관련 학습 활동의 예					
학기	대단원명	대단원 학습 목표	소단원명	텍스트 변용 관련 학습 활동	교육 과정 내용(7차)
1	1. 문학의 즐거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학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다.</li> </ul>	(4) 이해의 선물 (소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떠하였을까’를 상상하여 글쓰기</li> </ul>	7-문-(3)

<p>3. 문학과 의사소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 작품, 독자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li> <li>•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li> </ul>	<p>(2) 현이의 연극 (수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의 입장이 되어 작가의 의도 적어 보기</li> </ul>	<p>7-문-(1)</p>
<p>5. 삶과 갈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등의 해결 과정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li> <li>• 작품 속에 나타난 갈등을 파악할 수 있다.</li> </ul>	<p>(1) 소설 동의 보감 (소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인공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li> </ul>	<p>7-문-(4) 7-문-(6)</p>
<p>7. 문학과 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 작품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li> <li>• 작품에 나타난 사회</li> </ul>	<p>(1) 홍길동전 (고전소설)  (3) 옥상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인공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 쓰기</li> <li>• 작품 속의 등장인물의 입장이</li> </ul>	<p>7-문-(3) 7-문-(7)</p>



		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민들레 (소설)	되어 글쓰기 • 나의 생활과 관련지어 글쓰기	
2	2. 문학의 아름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li> <li>• 일상 언어와 문학 언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li> </ul>	(2) 소나기 (소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편지 쓰기</li> </ul>	7-문-(3) 7-문-(4)
	6. 문학과 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통 행위로서의 문학의 특성을 안다.</li> <li>• 작품의 사회적, 역사적, 문학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li> </ul>	(1) 흰종이 수염 (소설) (2) 숨쉬는 영정 (소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인공의 입장에서 일기 써보기</li> <li>• 등장인물의 심정을 생각하여 글쓰기</li> </ul>	7-문-(1) 7-문-(7)

8학년 교과서 속의 텍스트 변용 관련 학습 활동의 예					
학기	대단원명	대단원 학습 목표	소단원명	텍스트 변용 관련 학습 활동	교육 과정 내용(7차)
1	1. 감상하며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 작품을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음을 안다.</li> <li>• 문학 작품에 대한 자기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li> </ul>	(3) 소음 공해 (소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인공과 다른 문제 해결 방법을 상상하여 쓰기</li> </ul>	8-문-(4)
	2. 우리 고전의 맛과 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전 문학 작품에 나타난 우리 조상들의 사상과 정서를 이해할 수 있다.</li> </ul>	(3) 토끼전 (고전소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결말 완성해 보기</li> <li>• 현대적 상황과 연결 지어 새로운 작품으로 재창조해 보기</li> </ul>	8-문-(7)
	4. 삶과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 작품이 삶을</li> </ul>	(2) 기억 속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장인물의 입장이 되어 글쓰기</li> </ul>	8-문-(1)

		<p>바탕으로 하여 창조되었음을 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 작품이 쓰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li> </ul>	<p>들꽃 (소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설의 이야기가 현실 속에서도 일어난다면’ 그 상황을 상상하여 글쓰기</li> </ul>	
2	3. 문학의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함을 안다.</li> </ul>	<p>(2) 들판에서 (희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상황과 관련지어 글쓰기</li> </ul>	8-문-(2)

9학년 교과서 속의 텍스트 변용 관련 학습 활동의 예					
학기	대단원명	대단원 학습 목표	소단원명	텍스트 변용 관련 학습 활동	교육 과정 내용(7차)
1	3. 독서와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읽는 이 에 따라 글 을 다르게 읽을 수 있 다.</li> </ul>	(2) 원미동 사람들 (소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설의 등장인 물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적기</li> </ul>	9-문-(5)
2	1. 창조적인 문학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경험을 토대 로 하여 문 학 작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li> <li>• 작품을 창조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 왜 중요 한지 알 수 있다.</li> </ul>	(2) 성탄제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인의 입장이 되어 인터뷰 기사 쓰기</li> </ul>	9-문-(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에 드 러난 작가의</li> </ul>	(1) 내 생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장인물의 마 음을 추측하여 적</li> </ul>	

	개성	개성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할 수 있다.	가장 따뜻한 날들 (수필)	기	
	4. 고전문학의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전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li> </ul>	(2) 가시리 (고려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자의 처지와 심정을 고려하여 위로 편지 쓰기</li> </ul>	9-문-(5) 9-문-(6)
			(4) 박씨전 (고전소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을 기사문 형식으로 다시 쓰기</li> <li>현대어로 다시 쓰기</li> </ul>	
10학년 교과서 속의 텍스트 변용 관련 학습 활동의 예					
학기	대단원명	대단원 학습 목표	소단원명	텍스트 변용 관련 학습 활동	교육 과정 내용 (7차)
	3. 다양한 표현과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면에 따라 다양한 표현 방식이 사용됨을 안다.</li> </ul>	(1) 봄 · 봄 (소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순이와 ‘나’의 대화 장면을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바꾼다고 할 때, 대화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겠</li> </ul>	10-국지-(5)

			는지 상황에 맞게 대화를 고쳐보자.	
5. 능동적인 의사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읽기와 쓰기가 의사 소통 행위임을 이해한다.</li> <li>• 작가, 독자, 문학 작품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문학 작품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li> </ul>	(1)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편지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들의 입장에서 이 편지에 대한 답장을 써 보자.</li> </ul>	10-문-(4)
6. 노래의 아름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작품의 구성 요소와 그 기능을 이해한다.</li> <li>• 문학 작품의 아름다</li> </ul>	(4) 유리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시의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간결한 산문으로 써 보고, 시와는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지 말해 보자.</li> <li>• 이 시의 형식을 빌려 아끼는</li> </ul>	10-문-(2) 10-문-(3)

		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물건이나 동물을 잃었을 때의 심정을 시로 표현해 보자.	
	7. 생각하는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상황에 적절한 내용이 중요함을 안다.</li> <li>• 상황에 따라 적절한 내용을 생성하여 말하거나 글을 쓸 수 있다.</li> </ul>	(1) 장마 (소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이 이야기 속의 '나(동만)'라고 상상하고 다음 활동(쓰기)을 해 보자.</li> </ul>	10-쓰-(2)
하	3. 함께하는 언어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법 규칙을 이해하며, 그러한 규칙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말하기와</li> </ul>	(2) 어느날 심장이 말했다. (드라마 대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자간에 서로 상처를 준 말들을 찾고,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상상하여 표현을 고쳐 보자.</li> </ul>	10-국지-(3) 10-듣-(5) 10-말-(5)

	듣기 활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알고, 바른 태도로 말하고 들을 수 있다.			
4. 효과적인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과적인 표현의 원리를 활용하여 언어 활동을 할 수 있다.</li> <li>• 문학적 표현의 효과와 방법을 안다.</li> <li>• 문학적 표현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li> </ul>	(2) 눈길 (소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나'의 마음이 어떠할지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글을 써 보자.</li> </ul>	10-문(6)

[표5] 교과서 속의 텍스트 변용 관련 학습 활동의 예



학습 활동을 살펴보면 텍스트 변용의 활동이 주로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글쓰기, 작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첨가하기, 글의 결말 바꾸기,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편지쓰기 혹은 학습자가 등장인물이 되었다고 가정하여 일기 쓰기 등의 일련의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학습 활동 들은 읽기 후 활동으로서 학습자가 작품을 ‘단순히 감상하기’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상에서 나아가 ‘작품을 스스로 재창작’하면서 자신만의 표현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학습자의 창의력 신장을 도와주는 도구로 활용된다면 그 목적에 크게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 활동들이 그 시기의 교육 과정에 너무 치우쳐서 지나가는 유행처럼 너무 한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sup>56)</sup> 따라서 학습자에게 창의적인 쓰기 혹은 표현 능력을 요구하기 전에 학습자에게 체계적인 지도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텍스트 변용 활동에 있어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의 단계가 필요한 것이다.

시점을 변형하는 활동을 통한 교수-학습 지도는 소집단 토의 활동이라는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상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는 과정을 통해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즉 소집단별로 함께 논의하여 대상 텍스트를 변용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여 적당한 방향의 변용 작품을 창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업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협력적 사고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를 알게 해준다. 소집

56) 중학교 교과서를 예로 들면, 거의 모든 학년의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각 단원 학습 활동에 쓰기 학습 활동이 마치 ‘필수 요소’ 인 것처럼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다양한 학습 활동의 적절한 예가 아니며, 단순히 창의성을 강조한 교육과정에 부합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대안일 뿐이다.

단 토의 활동을 통해 각자의 의견이 교환됨으로써 학습자는 대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인식하게 되어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상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에 대한 친밀감이 형성되기도 한다. 또한 수업시간에 제시된 작품을 읽고 함께 토의하면서 새로운 변용 작품을 구상하는 과정은 무엇보다도 참신한 창의력이 요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토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점 변용 학습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창의력을 계발하고 신장시키는 훌륭한 기회가 된다.

결과적으로 시점 변용의 쓰기 전략의 적용은 텍스트 변용 요인과 창의성 구성요소들과 관련<sup>57)</sup>지어서 이루어진다. 첫째, 시점 변용을 통한 글쓰기는 학습자의 주제적이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텍스트의 이해와 더불어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결국 학습자의 창의력이다. 텍스트 변용을 통한 글쓰기 활동에서 학습자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텍스트의 세계를 형상화한다. 이때 텍스트의 세계와 학습자의 자아 세계를 연합하려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자아가 인식한 텍스트의 세계를 초월하여 새로운 세계를 구성하고 창조해보려는 일련의 창의적 활동이 일어나게 된다. 교사는 학습자 스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다양한 방향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둘째, 학생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은 학습자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것이다. 시점 변용의 글쓰기를 활용하는 방법은 교사의 세세한 관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면이 많다. 텍스트의 세부적인 내용과 의미 이해에서는 학습자 각자의 몫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 중심의 접근은

---

57) 홍지영, 「텍스트 변용을 통한 창의적 글쓰기 지도 방안 연구-〈시점 변용〉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pp.63~65 참조.

개별적인 접근과 소집단 접근이 있을 수 있다. 개별적인 접근은 바꾸어 쓰려고 하는 대상 텍스트를 개별 학습자 스스로 내용을 파악하고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즉, 주어진 텍스트나 텍스트의 목록을 활용하여 스스로 보고, 읽고, 생각하고, 정리하여 봄으로써 텍스트를 이해하고 텍스트를 새롭게 바꾸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소집단 활동은 학습자들이 소집단별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활동하는 방식이다. 학습 목표나 활동 주체에 따라 적절한 소집단을 구성하여 집단별로 학습 활동을 전개한다. 변용하려는 텍스트를 선별하는 문제에서부터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하고, 의미를 이해하고, 새롭게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을 조직하고 구성하는 활동들을 소집단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방식이다. 시점 변용을 통한 글쓰기 활동은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을 바탕으로 개별학습과 모듈학습이 적절하게 조화된 학습 활동을 지향한다. 셋째, 시점 변용을 통한 글쓰기는 자기 반영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시점 변용을 통한 활동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 세계나 자기중심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대상 텍스트를 변용한다. 따라서 새로운 텍스트에는 학습자의 세계가 반영되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학습자의 자기반영성을 교사는 염두에 두어 지도해야 한다. 특히 학습자가 새롭게 재구성하여 변용된 텍스트와 기존의 텍스트의 비교 과정에서 섬세한 지도 기법으로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의 이해와 감상 및 창작의 과정이 총체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학습이 되어야 한다. 이때의 텍스트는 읽기와 쓰기 활동이 함께 일어나며 텍스트의 수용적 측면과 텍스트의 재생산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통합적 활동이 강조 된다. 텍스트의 수용적 측면에서는 텍스트와의 대화성과 비판력이 텍스트의 재생산 측면에서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현된다.

교수-학습 형태는 모둠 활동을 중심으로 구안<sup>58)</sup>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개별 활동 및 전체 활동을 함께 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교수-학습 지도안과 지도상의 유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원명	3. 다양한 표현의 이해 (1) 봄봄		차 시	2 / 2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설속의 시점을 변경하여 재창작할 수 있다.</li> <li>● 소설속의 시점이 변화됨으로 인해 생기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li> </ul>			
수업 단계	교수-학습 활동			비교
	교사활동	학생활동		
도입 (5분)	▷ 인사 - 전시학습 확인 - 학습목표 제시 - 학습내용 안내	▶ 인사 - 전시학습 확인 - 학습목표 숙지 - 학습내용 숙지		
전개 (5분)	▷ 텍스트 변용 활동 설명 - 시점 변용 활동 설명 ▷ 모둠조 편성 확인	▶ 텍스트 변용 활동 이해 - 시점 변용 활동 이해 ▶ 모둠조 편성(사전지시)		

58) 소집단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의 교환, 서로 간의 자극과 보조, 협동 학습, 피드백 등의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

<p>활동 (25분)</p>	<p>▷ 소설 속 시점 바꾸기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 설명</li> <li>- 시점 변용이 가능한 유형 제시</li> <li>- 모듈별로 소설 ‘봄봄’의 시점을 변화시켜 작성해 보도록 한다.</li> </ul> <p>▷ 시점 변용의 효과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점 바꾸기 활동을 통해 달라진 양상과 그로 인해 생기는 효과 제시</li> </ul>	<p>▶ 소설 속 시점 바꾸기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알 수 있는 요소 찾기</li> <li>- 시점 변용이 가능한 유형 파악</li> <li>- 모듈별로 시점 바꾸기 활동을 한다.</li> <li>- 각 모듈 대표가 정리하여 발표 한다.</li> </ul> <p>▶ 시점 변용의 효과 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설의 시점을 바꾸어 표현해 보았을 때 소설의 분위기와 주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발표</li> </ul>	<p>모듈 활동</p>
<p>평가 (10분)</p>	<p>▷ 평가지 배부</p> <p>▷ 조별 상호 평가 안내</p>	<p>▶ 평가지 받으며, 확인</p> <p>▶ 조별 상호 평가 숙지</p> <p>▶ 조별 상호 평가 실시</p>	<p>평가지 작성</p>
<p>정리 (5분)</p>	<p>▷ 수업 정리</p> <p>▷ 다음 차시 예고</p>	<p>▶ 수업 정리</p> <p>▶ 다음 차시 준비</p>	

[표6] ‘시점을 변용하여 텍스트를 재창작하고 그 효과 파악하기’  
교수-학습 지도안

## 1) 도입

교사는 우선 지난 차시의 학습을 상기 시키며 전 시간에 학습 했던 내용을 질문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각 차시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진행 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 그 후 이번 분시 학습이 지난 학습과 어떻게 연관되며 나아가 이번 분시 학습에 도달해야 할 학습 목표인 '소설속의 시점이 변화됨으로 인해 생기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를 제시하며 분시 학습 시간에 하게 될 학습 내용을 안내하며 수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준비한다.

## 2) 전개

이번 분시학습에 주요 활동이 될 텍스트 변용 활동에 대해 설명한다. 텍스트 변용 활동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학생들에게 친숙한 단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학생들이 이 활동이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자세하고 친절한 해설을 덧붙인다. 읽기 학습에서 쓰기 학습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학생들이 일방적인 쓰기 학습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지난 차시에 했던 내용 파악 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앞선 활동에서 학습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상기시킨다.

또한 모둠학습에 대해 모둠학습이 가져오는 효과에 관해 설명하고 나아가 당부해야 할 말을 잊지 않고 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활동에 있어 효과적인 참여와 진행을 요구해야 한다. 당부의 말이 끝나면 각 모둠별로 활동을 진행하도록 지시한다.

### 3) 활동

교사는 우선 총 25분의 시간동안 어떻게 활동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미리 구상하여 시간 분배를 잘해야 한다. 이 활동은 스토리의 전달이 얼마나 매끄럽게 되었나보다는 어떤 서술자를 설정하고 있는지, 서술자가 일관성 있게 전달하고 있는지, 학습자가 어떤 작가 의식을 담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둔 활동이다. 따라서 글의 완성도 보다는 글을 완성시키는데 시점을 도구로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시점을 변용하는 글쓰기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다양한 서술자의 위치를 경험하게 되고, 서술자의 위치 전환으로 인해 작품의 극적인 효과와 흥미가 달라짐을 느낄 수 있다. 즉 학습자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적합한 서술자를 설정하는 것이 소설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효과를 가진다.

또 각 모둠 대표가 발표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함께 쓴 글을 다른 모둠원이 읽고 서로의 잘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평가 단계에서 보다 세세하게 분류하여 소그룹 평가 및 집단 평가로 이어지겠지만 활동 단계에서 미리 발표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평가 단계로 넘어가도록 한다.

봄 · 봄	
○월 ○일	모둠조 ○
학습 목표	1. 소설속의 시점을 변경하여 재창작할 수 있다. 2. 소설속의 시점이 변화됨으로 인해 생기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학습 내용	시점 바꾸어 쓰기
유형 1	주인공 바꾸기 예) 나 → 점순이 / 나 → 돌쇠
유형 2	주인공 위치 바꾸기 예) 작품 내부 / 작품 외부
유형 3	형식 바꾸기 예) 소설 → 소설 / 소설 → 신문기사
※ 선택한 유형에 맞게 글을 쓰세요.	

[표7] 시점 바꾸기 학습 활동지



#### 4) 평가 및 정리

학습자들은 각 모듈이 발표한 글에서 비슷한 능력의 다른 학습자들이 어떻게 글을 구성하였는가에 대해 매우 큰 재미를 느끼며 이 활동을 통해서 같은 작품을 다양한 시점에서 쓴 여러 종류의 창작물을 접하게 될 것이다. 상호 평가하기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들의 글쓰기 과정을 반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다른 학습자들과의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잘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으며, 남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도 기를 수 있다.

교사는 미리 사전에 상호 평가지를 작성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그룹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전체 학습 집단 속에서 그룹의 평가를 하계끔 유도해야 한다. 이는 작품의 질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의 학습의 참여성, 또는 과제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였는가에 대한 항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조별 상호 평가가 끝나면 교사는 본시학습을 정리하며 이번 단원에서 배운 학습을 총괄할 수 있는 정리를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여기서서는 텍스트의 이해와 감상 및 창작의 과정이 총체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학습이어야 한다. 텍스트는 읽기와 쓰기 활동이 함께 일어나며, 텍스트의 수용적 측면과 텍스트의 재생산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통합적 활동<sup>59)</sup>이 강조되어야 한다.

---

59) 텍스트의 수용적 측면에서는 텍스트와의 대화성과 비판력이, 텍스트의 재생산에서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현된다.

## IV. 결론

시점은 독자와 작가의 태도와 세계관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작품에 드러난 주제 의식을 해석하는 통로로서 소설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있어서 효용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설 작품 내에서 서술자의 역할과 그 특징, 서술자의 의의에 대해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나아가 시점 교육이 지향해야 할 부분과 학습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제1장에서 시점에 관한 논의와 시점 교육에 관한 연구가 그 논의에 있어서 다양성이 떨어지고 단순히 이론에 대한 논의에 그쳐 그 활용형이나 시점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그 개선 방향이 시급하다는 연구 목적을 밝히고, 이에 따라 기존의 시점에 관한 연구와 시점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연구 방법을 정립하였다. 제2장에서 현 교육과정의 시점 교육 양상 및 문제점을 파악해 현 교육과정 속에서 시점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은 채 작품을 단순히 브룩스와 워렌의 사분법 체계 속에서 다루고 있으며 시점 이해 교육에 관한 측면에서는 교과서 학습 활동을 예로 보아 시점 활동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예전 교육 방식을 고루한 채 뚜렷하게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결국 소설 교육의 측면에서 소설 속의 시점의 개념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시점 유형에 대한 구분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즉 시점 교육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효과적인 시점 교육 방법을 논의하여,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

서는 제2장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 모델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교수-학습 모델은 총 2차시로 구성하였다. 일차적으로 학습자가 서술자를 인식한 후 시점이 갖는 특성을 파악한 다음, 원작의 시점을 변용하여 텍스트를 재창작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기 등으로 구성하여 각 차시에서 갖는 교육 효과와 교사의 지도상의 유의점 대해 모색하였다. 특히 원작의 시점을 바꾸어 봄으로써 원작의 시점의 기능과 효과를 확인해 보는 학습 활동은 시점의 유형에 다른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작품의 의미구조와 어떻게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제 수업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소설 교육은 소설과 학습자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작품의 형식적 요소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되어서는 소설 교육이 가지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학습자가 능동적인 자세로 소설을 읽고 소설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서술자와 소통함으로써 작품의 의미를 파악해 나갈 수 있다. 결국 시점을 통하여 소설 교육을 하는 것은 학습자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작품의 의사 소통 구조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교수-학습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한다. 또한 시점을 작품에 드러난 주제를 해석하는 통로로서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서술자의 존재를 파악하게 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서술자의 존재 양상을 중심으로 한 소설 읽기가 작품에 대한 본질적 접근임을 인식하게 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다음 단계인 시점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게 하는 것은 서술자의 서술 및 지각 방식을 학습자의 기존 문학적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이해하게 하고 문학적 체험을 넓힘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소설 읽기 과정에 참여하게 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서술의 특성을 통해 작품의 의미구조를 파악하게 하는 것은 소설의 서술이 갖는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작품의 형식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작가의 주제 의식까지 파악하게 하여 학습자들의 작품 감상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학생들을 능동적으로 작품 감상에 참여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시점을 통한 소설 교수-학습 연구를 통해 학습자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텍스트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텍스트 속의 의미를 찾아 소설의 형식적 측면과 의미 구조 측면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적 원리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단편적인 현 교육 현장을 탈피할 수 있는 한 대안의 방안으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나아가 깊이 있는 이론적 탐색과 연구에 이어 다양한 대안과 그 실천이 소설의 이해와 감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기본 자료

-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별책5],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1998.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 2001.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 2001.
-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 2009.
-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 2009.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1-1』, 2008.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2-1』, 2008.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3-1』, 2008.

### 2. 국내 저서

- 구인환·구창환, 『문학의 원리』, 법문사, 1969.
- 김동리, 『소설작법』, 문명사, 1971.
- 김상욱, 『소설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박재섭, 「한국현대소설 시점연구사」, 『현대소설 시점의 시학』, 한국소설학회 편, 새문사, 1996.
- 신동욱, 「시점과 소설미학」, 이선영 편, 『문학비평론』, 고려원, 1984.
- 이재선, 『한국단편소설연구』, 일조각, 1975.
- 이재인, 「소설의 시점」, 『현대소설의 이해』, 문학사상사, 2003.
- 정재석, 「유년시점의 서사적 의도-김남천의 단편소설-」 『현대소설 시점의 시학』, 한국소설학회 편, 새문사, 1996.
- 정한숙, 『소설기술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5.

조진기, 『한국근대 리얼리즘소설연구』, 새문사, 1989.

최시한, 「염상섭소설의 전개」, 서종택 정덕준 편, 『한국현대소설의 연구』, 새문사, 1990.

### 3. 국외 저서

B. Uspensky, 김경수 역, 『소설 구성의 시학』, 현대소설사, 1992.

N. Friedman, 김병욱 역, 「소설의 시점(point of view in fiction)」, 『현대 소설의 이론』, 예림기획, 1997

S. Chatman, 김경수 역,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 이야기와 담화』, 민음사, 1990

### 4. 학술 논문

구인환, 「한국현대소설의 구성적연구」, 『서울여대 인문사회과학논문집』, 1971.

김병로, 「현대액자소설에의 서사시학적 접근」, 『한남어문학』 15호, 1989.

김천혜, 「시점에 관한 연구」, 『부산대사대논문집』, 1976.

김형민, 「김유정 소설의 서술주체와 서술객체」, 『어문교육연구』 11집, 부산대학교, 1991.

나영희, 「날개의 시점연구」, 『백록어문』 5호, 1988.2.

박기범, 「시점-서술 교육의 반성과 개선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31권, 국어교육학회, 2008.

박종홍, 『현대소설론』,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999

신순철, 「김동인의 액자소설연구」, 『경주실업전문대논문집』 1호, 1983.

전국국어교사모임, 『함께 여는 국어교육』, 전국국어교사모임, 1998  
가을호.

최상규, 「시점에 관한 연구」, 『공주교육대학논문집』 13호, 1976.

최성만, 「현대액자소설의 형태적 고찰」, 『어문교육집』 4, 부산사대  
국어교육과, 1980.

최인훈, 「시점에 대하여」, 『월간문학』, 1969.3.

## 5. 학위 논문

고경희, 「창작 활동을 통한 소설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국교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구수경, 「한국 서사문학의 시점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김용재, 「한국 근대 단편 소설의 기술 형식 연구」, 전북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김유하, 「소설의 서술유형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김자현, 「문학교과서의 소설의 시점 교육 연구(7차 교육과정을 중심  
으로)」,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김정희, 「1인칭 서술 화자의 서술 방식을 통한 소설 교육 연구-  
「봄봄」, 「장마」, 「그 여자네 집」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김종구, 「한국소설의 시점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노광복, 「채만식 소설의 서술상황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86.

류은숙, 「중학교 소설 단원 시점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오경복, 「박태원 소설의 기법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오윤정, 「시점 분석을 통한 소설 교육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이경범, 「소설시점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이수정, 「일인칭소설의 신빙성없는 화자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이수정, 「일인칭소설의 신빙성없는 화자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이유범, 「소설시점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이종임, 「동리의 액자소설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4.

진지원, 「'서술자'와 '시점' 중심의 소설 교육 -채만식 작품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최병우, 「한국 근대 일인칭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한혜경, 「채만식소설의 언술구조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홍지영, 「텍스트 변용을 통한 창의적 글쓰기 지도 방안 연구-〈시점 변용〉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 6. 기타

박진 '채트먼 : 영상서사로 확장된 시학', |작성자 툃툃,

<http://blog.naver.com/iocean74>.



##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by a point of view

Kim Ji hye

Dept. of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is study, a point of view right to understand an important about writer's attitude and view of the world and work revealed themes to interpret the passage as a novel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to the utility point based on the point of view through the specific storie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were investigated.

The literary area is easy to be accommodating activity study of reading because of the size. However, students who have been had this form of indoctrination classes can not have the autonomy and creativity. To solve this teacher should be required to teach the students to participate actively in learning activities. In other words, the work ability of active understanding in order to understand the literary theory of

education, rather than being provided only by a variety of ways to access and interpret a variety of ways to see the work training is needed.

In 2007, the revised curriculum from the perspective of literary production by identifying communication are not only acceptance and production takes place in one direction, but also authors and readers, the context, the work is done in such interactions were to recognize. Literary activity is a complex phenomenon which works as a whole with writers, works, readers, context, and grammar. As the audience that students may participate in the communication process and may be involved as producers. Production area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complete the literary experience as a key element.

Through the point of literary education is to educate learners to work positively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ommunication structure and the teaching-learning should be in the principal role. Also work revealed a point of view to interpret the theme as the channel is used effectively. However, at the time of the current school education does not work. Only for narrow perspective theoretical knowledge is conducted.

Therefore, the present study contained in the language textbooks for junior high and high school focusing on the work at the research and analysis through the novel and specific teaching-learning activities would provide Plans. And diversity

in education for students to familiarize themselves seeks to promote the achievement effects. The role of narrator in the novel and its features, how about the significance of descriptors to discuss whether to educate, even when part of education and learning should be pursued in the field to take advantage of the specific teaching-learning has been presented. Apply lessons teaching-learning program, the first time that students recognize the descriptor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formation of teaching and the second point, the text of the original and recreated the effect of smaller classes were set up to identify. Each class is conducted in specific activities which are proposed. Also, the educational effectiveness of each class and teachers what to do through the lesson have looked.